

- **총학생회 의결 및 운영**: 의결 및 운영 기구는 학생총회 - 학생총투표 - 학대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
-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총학생회의 상설 운영기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 정기 중운위는 매주 1회 개최
- **학대운영위원회(학운위)**: 총학생회의 의결기구.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의 정 부회장, 과/반 학생회장으로 구성
- **14차, 15차 중운위에서 논의, 의결된 투표관리 위원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4차 중운위에서의 논의 결과**
 - 투표 관리 위원회: 학생 총투표의 구체적 시행 방법, 투표 관리, 개표, 결과 공고 등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 구성: 중운위원 중 5명으로 구성한다.
 - 의결: 재적인원의 과반으로 한다.
 - 위원장: 5명의 위원 중 호/선호로 선출한다. 소집 공고 및 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구성원 선출: 중운위 클럽에서 투표관리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 하신 분들을 받고 다음 중운위에 논의하기로 한다.
- **15차 중운위를 통해 구성된 투표관리위원회 5인**: 부총학생회장, 시회 과/대 학생회장, 법과대 학생회장, 치과대 학생회장, UIC 학생회장



총학생회 회칙 개정 총투표

당신의 선택이
좀 더 시골벽적
해져야 하는
이유

너무 조용하다 3월 19일 총학생회장의 총여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연세 춘추 인터뷰와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안을 언건으로 한 총투표 발의에 대해 학내 많은 단위들이 순식간에 플랑, 자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학내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학내 언론사들이 모두 총학을 말하고, 총여를 말하고, 대표자들의 인터뷰를 실어대고, 사태는 이렇다며 말하는데, 한편에서는 도무지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뭐라는 건지 난무하는 말들에 비하면 이 사태를 대하는 심산은, 그저 고요하다.

총여 폐지를 언급한 총학, 사태는 이렇다 총학생회는 3월 19일 연세춘추 1면을 통해 '총학, 총여 대제기구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21일,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으로 총투표 공고를 했다.

총학생회의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총여학생회 폐지는 총학생회의 회칙 전면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의 사항일 뿐이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연세 춘추 기자 스스로도 6하원칙을 빼버릴 정도의 '특종'인 총여학생회 폐지를 언급함으로써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학내에서는 생각된다. '특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학내에서는 생각된다.

총학생회의 회칙 전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채 진행되기도 이전, 학내에서의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총여학생회를 두었다. 총학생회는 전면 개정하려는 회칙의 내용 중 총여학생회 폐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혹은 이 사안에 대한 홍보만으로도 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총투표에 대한 학내 구성원과의 논의와 소통, 입장 글만으로는 부족하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은 학내 구성원간의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발의되어 단 한 번의 찬반 총투표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간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안이 단순히 한 기구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 개개인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

을 밝히고, 소통과 논의의 중심에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서야 한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은 단 한 번의 총투표가 아닌,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에 의한 소통을 거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총학생회가 총투표를 공고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청회를 준비하겠다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거부 의 입장 글만을 지속적으로 발표, '보시오.' 라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3월 26일부터 학내 곳곳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수거함은 4월 11일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과연 학내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어떻게 수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 44대 연세 대학교 총학생회(준) WoW YONSEI의 연세회칙 전면 개정안에 대한 제안에서부터가 아닌,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과 어떤 부분에서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으로 나아가야 한다.

총투표를 시골벽적으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 때에, 침묵은 그 무엇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제 '총학생회 회칙 개정'이 연세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총학생회의 추상적인 믿음이 정착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봐야 한다. 총학생회는 스스로 학내 구성원과의 진정한 소통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총학생회 회칙에 대해 중운위 자리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만약 지금처럼 대표자들이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고 굳이, 끝까지 그 신념을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할 것을 신청한 사람들의 찬/반 의견만을 나누어 들으려할 것 아니라 2007. 4. 6. 총학생회장은 '연세 주권과 공청회에 대한 입장 및 공개토론회에 대한 안내'를 통해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론회 패널 신청 게시판에서 패널 신청을 받은 후 찬반 양측의 수를 동일하게 하여 공개토론회 패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만 연세, 전체 학우들의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회칙 전면 개정안 수정에 반영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 총투표에 대해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궁금해하는 연세 사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세 사회를 시골벽적으로 만들, 학생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알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by_ 우주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반박될 수 있도록.

Contents 1

- [기획] 총/여/학생회 이야기
[기획] 학내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 [지식]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이?
참을 수 없는 호모포비아의 가벼움
- [기획] 뜨거운 개떡, 총여 폐지론을 해부한다.
[광고] Inside OUT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광고] 강의실 내 호모포비아 발언, 신고하세요!
[광고] 생리결석계가 시범운영 됩니다
- [기획] 어렵고도 즐거웠던 소통의 기억을 되살리며
[후기] 코골다가, 울다가, 웃다가, 노래하다가, 춤이라도 춰볼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하 '조제, 호랑이...')이 처음 개봉했을 당시, 나는 한 TV에서 방송되던 영화소개프로그램을 통해 이 영화의 존재를 알았다. 하이라이트 부분만 편집된 것을 보는 동안 '아, 그냥 연애영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잊혀져갔다. 하지만 우연히 '조제, 호랑이...'를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제각각 이 영화를 보며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애영화로, 또 다른 사람은 성장영화로, 누군가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서 영화를 보았을 것이다. 굳이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 묶어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기에 '조제, 호랑이...'는 너무나 복잡 미묘한 영화였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조제, 호랑이...'는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고, 이에 조제와 장애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보고자 한다.

조제와 쿠미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시선들

매일 새벽, 할머니의 유모차에 타고 산책을 하는 조제.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계란말이를 잘 만드는 여성이다. 밥 보다는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며, 그녀만의 공간인 벽장에서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며 살면서 웃음 지을 줄 안다. 프랑스 요리사가 사장을 너무나 좋아하며, 그래서 자신을 그 소설의 주인공인 조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제에 대한 단상을 짧게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녀는 20대 여성이고, 오사카 사투리를 쓴다. 조제는 다리가 불편하다. 뇌성마비인지 뭔지 모를 병으로 인해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의자에서 다이빙을 해서 뛰어 내릴 수밖에 없으며, 할머니의 유모차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 할머니는 조제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조제의 존재를 숨겨왔으며, 조제에게 다가왔던 츠넌오에게도 "이 아이는 고장난 물건이니, 더 이상 가까이오지 말게."라고 단호히 질라버린다.

그녀는 장애여성이다

그녀가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조제를 숨기기 위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고, 남이 버린 책을 주워 준 것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많은 장애여성들은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성찰 없는 법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며, 또한 흑역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전혀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장애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교육권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조제를 집에 숨기고,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 역시, 할머니의 생각에 조제는 장애인이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제는 할머니가 주워오는 낡은 교과서를 보며 한자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것을 즐긴다. 조제는 가질 수 있는 자원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 지적욕구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교육권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다. 누구든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교육권은 그녀에게 있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권리였고, 박탈당한 것이었다.

그곳엔 빛도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와, 정적만이 있을 뿐이지, 별로 외롭지도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깐, 다만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

조제는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했다. 조제는 밝은 낮에 볼 수 있는 하늘, 구름, 물고기들, 바다를 가질 수 없었다. 츠넌오와의 첫 산책에서 유모차가 언덕을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도, 다친 것에 전혀

아파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저 구름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하늘의 구름이, 조제에게는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가 되는 것, 이는 장애여성인 조제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아닐까. 사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편하고/불편하고가 나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우리 주변의 많은 시설들을 둘러보면 너무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있다. 세상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편하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선, 장애인들에게 "너네 불편하겠구나."라는 식의 말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간은 사회의 협조하고 획일적인 몸매에 대한 기준으로 정상/비정상을 나눈다. 이러한 정상/비정상의 기준은 때로 모호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과 함께 다시 한 번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던 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 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경우에 벌어지는지 떠올려 보면 한 사회가 갖는 고정관념, 그리고 비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문제는 우리가 왜 '이상한 느낌'을 갖는가이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이 원래부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지어버리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은 무엇이 시작인지, 또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런 구분을 짓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누군가를 정상/비정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일이며, 자신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 구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주어져선 안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상/비정상 구분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광범위한 구분을 만들어 냈다.

할머니와 함께 새벽 산책을 할 때도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면 담요를 뒤집어쓰며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야 했던 것은 결코 조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제는 한 사회에서 만들어낸 정상/비정상의 범주에서 '비정상'이라고 구분지음을 '당했다'. 이렇듯 비장애인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란 매우 힘들다. 조제는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몸이 '불편'하다는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녀는 그렇게 주위 시선을 피해 집안에 머무르며 소설을 읽고, 소설의 주인공을 자신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쿠미코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그녀에게 억압적인 곳이었다. 이러한 공간을 떠나 자신이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설 속의 조제를 택하였다. 여주인공이 '쿠미코'가 아닌 '조제'로 살아가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영화의 결말에서 조제는 등을 돌리는 츠넌오에게 웃으면서 도색 잡지를 건네며 보냈다. 그리고 유모차 대신 전동휠체어를 타고 직접 장을 보고, 자신을 위한 생선을 굽는다. 예전의 호트러진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여있다. 그녀는 이제 츠넌오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가 한때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구름을 이제 스스로 밖에 나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물고기를 보기 위해 수족관까지 혼자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쿠미코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조제, 호랑이...'에서는 조제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아무런 힘도 없이 보이고, 너무나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은 쿠미코가 처음 보았던 예쁜 구름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리고 영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너무나 많은 이 사회는 철저히 비장애인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시설, 알람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 장애여성을 위한 제도나 시설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처에서 장애여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장애여성들은 억압받고 있으며, '비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철폐해야만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삶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며, 또 운동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사회에 문제제기 해야 한다. 조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장애여성들이 그녀들의 권리를 외칠 때,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by_ 케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시한 틀에 갇혀 살지 않아

우리의 겨울은 연세재활학교의 봄을 위한 시간이었다

12월 24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연세대학교의 명물인 본관 앞 트리를 구경하러 왔던 서울시민들과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을 접하게 되었다. 휘황찬란한 트리 앞에는 존스롭게 알록달록 꾸며진 천막이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일련의 무리가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도 많은지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었다. 그리고 천막에는 "연세재활학교 신축, 학칙개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적혀져 있었다. 도대체 추운 겨울 연세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복도학교' 연세재활학교

연세재활학교는 1964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체특수학교이다. 장애인 교육의 사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세재활학교'의 존재는 연세재단에게 있어 훌륭한 '홍보대사'였고, 수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게 되는 근거였다. 하지만 '최초'라는 화려한 명성 그 이면에는 연세재활학교의 어두운 현실이 은폐되어있었다. 연세재활병원 3층 한 칸에 위치하여 '복도학교'라고 불리는 연세재활학교는 6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시설이다. 연세재활학교는 학습 공간, 휴식 공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국의 장애인 특수학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평가받는다. 연세대학교 교정 내에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하나 없는 재활학교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학교로 은폐되어왔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초등학교만 개설되어있어 재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없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세재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집과 거리가 멀거나 치료 시설과 멀리 떨어진 등 악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중등부가 개설된 다른 특수학교를 찾아 갈 수밖에 없었다. 반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찾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생존이다. 진학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곧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전바람을 이겨냈다

연세재활학교 학부모들은 '중·고등부 개설'을 위해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대가로 2003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세재활학교 신축관련 예산으로 52억원을 배정받는 성과를 얻어 내었다. 하지만 연세재단은 이 돈을 집행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 재단의 거들되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세재활학교 신축관련 예산을 2006년 예산으로 37억 가량 재배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2006년 5월 연세재단 이사회에서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승인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세재단은 '중·고등부를 포함하는 형태로의 재활학교 학칙개정, 행정절차 집행' 등 신축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으며 재활학교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어렵게 받아낸 예산이 또다시 불용처리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들려오는 대답은 '재활학교는 돈이 안 된다.'였다. 자신들의 자산 증식에만 혈안이 된 교육 '자본'에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은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었다. 학칙개정이 늦어질 경우 신축 자체가 무산됨은 물론 곧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의 진학이 불가

능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연세재단은 자신의 비용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아가 신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원했을 뿐이었다. 12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도 학칙개정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학부모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2월 18일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위한 천막농성이 시작되었다. 연세재활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타대학 학생들, 장애인 인권단체, 지역 단체, 재활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천막 안에서의 겨울나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천막에서 2~3일 밤을 지새면 몸살이 나기 일쑤였다. 학부모(거의 대부분 어머니들이었다.)들은 장애아동들을 돌보며 힘든 천막생활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했다. 천막에서의 생활은 마음을 다잡더라도 지치기 쉬운 것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돈이 안 된다'며, '학칙개정 불가'를 천명했던 재단의 반응이 모든 사람을 분노하면서도 불안하게 했다. 급기야 12월28일 연세대학은 '재활학교 신축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통해 연세재활학교 농성단 투쟁을 마치 "헌신적인 재단에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행동"인양 왜곡하며, 학칙개정 불가를 공표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공동위의 지지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였다. 매일 같이 집회와 선전전을 하여 상황을 알려나갔다. 대부분의 활동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이었다. 문제의 발단인 연세재단과 연세대학을 압박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연세대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학교에 지지를 표명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늘어갔다. 개인적으로 천막을 찾아오기도 하고 과반에서 학회에서 동아리에서 단대학생회에서 연대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독자적인 연세대 학생들의 연대체인 '공존'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재활학교 신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세대 정문 봉쇄 등 연세자본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연대, 지지지 않았던 투쟁의 결과로 1월 15일 마침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까지를 포함하는 재활학교 학칙개정'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 달에 걸친 농성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하지만 재활학교 투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건물의 설계조차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의 계획안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연세재단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 지에 대한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 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신축 전까지 한 학년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장애인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산재해있다.

우리들의 연대는 끝나지 않는다

연세재활학교 투쟁은 비단 재활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 확충 요구'를 거부한 것, 연세대학이 '학내 장애인 시설 개선요구'를 거부한 것,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을 거부했던 것들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



신이 부담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이윤추적을 안정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회 구성원이 일련의 필요를 포함한 노동력 제공(노동력)을 알면의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얻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물인 자본가적 소유로 갈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은 자본가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교육비용, 주거비용, 노인부양 비용, 장애인 복지비용 등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적절히 가려내려 한다. 그들을 통해 자본가들은 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윤추적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생산의 영역에서 배제되며, 존재 자체가 은폐된다. 장애인의 주체적 생존을 힘들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을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이 알아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개별 가정으로 전가된 장애인 아동의 육아, 교육 등 생활전반에 대한 부담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어머니)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것은 재활학교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재활학교 어머니들은 장애인 아동의 생활 전반을 하나하나 신경 쓰며, 교사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시간은 한시도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 하였다. 천막 농성을 하며 장애인 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조차도 '어머니'만(천막농성에 참여한 학부모는 거의 전부 어머니였다.)의 역할이었다. 장애인의 주체적 생존과 안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가정의 어머니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연세재활학교 문제에서 보여진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통해 견고하게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체계적 억압은 여성해방과 장애인 해방, 노동해방이 왜 분리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총자본과 개별 자본' 대립은 서로에게 생존을 가능케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적 메커니즘을 생산하고, 생산의 발전을 위한 기술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 받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전체 자본의 이윤추적으로 안정적 늘어남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권 수인, 정부지원금, 기업 기부금 등을 통해 교육 자본은 스스로의 자산을 늘려나간다. 따라서 대립하는 총자본으로서, 그리고 개별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기능하는 교육자본(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 그러기에 연세재활학교 문제와 연세대학교 내 장애여성의 교육권 문제, 여성 교육권 문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연세재활학교 투쟁은 재활학교 학생과 학부모,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연대하여 교육자본인 연세대학을 압박하는 교육투쟁을 지속해나가야 함을 보여주었다.

연세 재활학교 투쟁은 이렇듯 다양한 억압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잘 보여주었으며 그것들을 통해 연대의 필요성을 반증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적 억압에 맞서기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떨어진 것이 아님을 인지하며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연대는 끝나지 않았다.

by_ 웹
불타는 노동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고민을 하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 학교 때부터 장애 여성을 만나려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학내 장애여성운동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A. 장애여성은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무엇보다 대학 공간에서 장애여성들이 당당해 질 수 있는 문화적 풍토와 기반을 구축하고 타대학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총학생회 각종 사업에 장애여성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매년 집행부를 구성할 때 장애여성 관련 실무 담당자를 꼭 만들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터뷰 및 정리 by_ 유나
다음부터는 글을 쓸 거예요. 아하



2007 레즈비언 문화제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나'의 목소리로 호모포비아적인 일상 앞에 마주한 그녀들이 있습니다. 거부적인 틀에 갇혀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그녀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풀어내는 2007 레즈비언 문화제는, 즐거운 Inside OUT! 으로 나를 외치고 일상을 만들어내고 싶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가 신청! inside-out@yonsei.ac.kr 메일로 소속, 학년, 이름을 보내주세요. ^^

모임은? 매주 수요일 늦은 6시 반,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

내 관심대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 여성주의 운동팀에서 만나요!

장애여성 운동 Team 19대 총학생회에서는 장애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풀어내고, 학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권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정상의 '기준' 안에서 '익숙'해져버린, 그렇기에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었던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 Team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휴식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여휴를 이용하면서 떠올랐던 아이디어들, 공간으로서의 여휴만이 아닌 여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여휴를 만들어가고 싶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inside-out@yonsei.ac.kr 메일로 보내주세요. ^^

장애여성, 책으로 만나다

헬렌 켈러 A life

도로서 허먼 지음 / 미다스 북스 / 2001



그녀의 삶은 그녀를 위대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88년이라는 그녀가 걸은 생의 시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3종의 장애를 이겨낸 훌륭한 위인으로 기억한다. 그녀의 생애에 있어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은 장애를 극복한 소녀 헬렌으로 묘사되는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나 저자인 도로서 허먼은 그와 같은 시선에 의해 가려졌던 '성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그녀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노동 운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그녀의 이야기를 한 글자씩 담아서 그려내고 있다.



장애 여성 '공감, 잡지'

장애 여성 공감 출판

장애 여성 공감은 1999년 장애 여성 3명과 비장애 여성 3명이 함께 만들었다. 거부적인 장애 운동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을 꿈꾸는 장애 여성들이 함께 만든 공감은 '가짜 시스터즈'와 같은 장애 여성들의 독립 이야기를 한껏 풀어낸다. 영화관에 간 이야기, 장애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보이는 책에 대한 분노의 비평들, 한창을 풀어내고도 끊이지 않는 그녀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자 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

오늘도 난, 외출한다.

김효진 지음 / 장차현실 그림 / 웅진지식하우스



이 책은 갈음, 다름, 소통, 사선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여성인 작가는 이 이야기들을 스스로의 삶을 토대로 풀어간다. 얼핏 보면 따뜻한 문체의 수필집 같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정죄된 이 사회를 향해 외치는 것으로 들린다. 이 책은 이처럼 사회의 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뒤덮인 이 사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렇게 사회를 향해 일상을 향해 '외출'하는 장애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중간 중간에 있는 장차현실의 짧은 만화에서도 만날 수 있다.

엄마, 외로운거 그만 하고 밥 먹자

장차현실 그림 / 한겨레 출판사 / 2003



만화가 장차현실이 다문증후군을 지닌 딸, 은혜와 함께 한부모 가정을 꾸려가는 일상을 그려낸 책이다. '장애아동'을 '혼자' 돌보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는 달리, 작가는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딸의 존재에 감사하며, 애정 어린 눈길로 딸의 성장을 바라본다. 고난과 역경을 보여주지도 않고, 물론 동정과 연민을 바라지도 않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편하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 다양한 물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김창엽 외 지음 / 삼인 / 2002



당신은 '장애'에 대한 무엇을 듣고, 보고, 접하는가?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며, 정신의 몸에 대립되는 비정상성을 의미하는가?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이야기들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자가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듯 '다양함 혹은 다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명명하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장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도 당연한 듯 장애는 치료해야 하는 비정상이며,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선택'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반응'이 장애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익숙하며, 그러기에 너무도 당연한 듯,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남겨버린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정치적인 시선의 선택들에 대해 그 메커니즘을 짚으며, 장애와 차별, 신체장애, 정신 장애, 여성과 장애, 총 4장의 구성으로 현 사회의 장애에 대한 그 총체적인 차별과 억압에 대해 말한다.

장애여성과 검정고시

나는 27세의 장애여성이다.

남들은 이 나이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겠지만, 난 늦은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이다. 언제부터 배움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의식하지 못했었고, 원망도 없이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어릴 적 동갑내기 사촌이 책가방과 학용품을 샀다고 자랑하던 기억... 그리고 너도 다리가 다 나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 자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느끼던 경험의 차이.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의식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나의 자각심은 자라왔다. 난 그저 안 배워도 똑똑한 아이일 뿐이었다. 어떤 의미의 똑똑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늘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멈추어져 있는 듯한 의식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 인정될 수 없는 무지함, 그것은 내 자아를 키워갈 수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였다.

사춘기 때 집 밖으로 나오며 많은 장애여성들을 알게 되었고, 그녀들 또한 비슷한 처지와 입장에서 나와 같은 강한 욕구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커 가는 문제의식... 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내 강한 의지로 닫힌 공간을 뚫고 나오려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기억하며, 우리들 앞에 늘 있어 왔던 것처럼 놓여 있는 저 높은 담의 실체를 확인해 가려고 한다. 언젠가 허물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 보았다. 아쉽게도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장애인 아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례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학업을 하고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장애 여성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 유일한 지원자일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만 매달려 보조해 줄 수 없고,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가족의 무관심은 자녀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의 열악한 편의 시설들과 장애인 교육을 비장애인화 분리시키려고 하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현실이 장애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가 중증이나, 경증이나에 따라 장애여성들은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이동성이 없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더 큰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증 장애인은 힘겹게나마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있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 통학을 위한 매일 매일의 이동 자체가 어려운 많은 중증 장애인들은 교육의 바깥에 머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시되고 있다. 장애여성의 교육에서 또 한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처한 어려운 조건들이다. 장애

여성은 절대 보호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장애여성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경제성이나 전문성도 기대하지 않는다. 어쩌다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특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여성은 교육으로부터 더욱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사회나 국가의 아무런 지원 없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애여성은 한정된 공간에서 성인여성으로서의 성숙됨을 갖지 못하며 소녀로서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장애여성은 집안 살림 내지는 아기 돌보기의 한 몫을 맡게 되고, 그렇게 가정에 얽매어 버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 여성이 읽고 쓰는 법만 익히고 수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 이상의 지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걸려 있는 어떤 욕구를 발견하면서 심적 갈등은 시작되고, 사회에 나오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로 인해 사회성의 미숙함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학벌 위주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제도 속에서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나 직업을 얻을 기회를 배제당한 이유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자립을 위한 경제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벌이 요구되기 때문에 막막한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장애여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해 가면서 끝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나 지원자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라는 유일한 통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곳이 장애인 아학이나 검정고시 학원이다.

여기까지가 많은 장애 여성들이 배움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결심을 내린 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검정고시 학원과 장애인 아학은 많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원은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구조로 인해 (1급) 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어려우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장애인 아학은 주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차량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힘겨움이 있다.

아학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지만 전문성의 미숙으로 체계적인 수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교육은 장애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는 개별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아학에서 그것에 맞추어 나아가기란 참으로 힘들다. 우선은 교사가 부족하고 한 학급 안에서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해 나가는 것은 학생과 선생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모든 학습을 단기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엔 부족하고, 수능까지 바라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등학교 정규 과정이라도 마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렇게나마 장애인 아학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혼자서는 휠체어조차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런 파견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간혹 종교나 개인의 연결망을 통해 개별 교육의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장기간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우 드문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다 하더라도 대학이란 문은 너무도 높고 그것을 통과하는 길은 험난하다. 많은 경우, 원서 접수에서 멈추고 만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이 어렵다. 그런 사람은 통학을 위해 함께 움직여 줄 보조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유일한 지원자인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녀들은 스스로 포기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스스로 교육의 길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지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들을 약하고 무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내가 전화상으로 만나 본 현재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장애여성들은 20~30대이며 독립을 원하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의 절실함을 알게 되었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때로는 공부라 나이로 인한 학습 부진, 생활을 위해 직업과 병행하며 공부해야 하는 버거움, 장시간 학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렇게 장애여성들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와 끝없는 싸움을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장애여성들이 많고, 특히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이루면서 어쩔 수 없는 여성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멀어져 간다. 미련을 간직한 채.

사실, 검정고시를 무사히 마친다 하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출세나 성공이 아닌 내 자아를 위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며 그 기회 또한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왜 장애여성들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권리를 당연히 요구할 곳이 없을까?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을 가정이나 부모에게만 온전히 돌려서는 안 된다.

국가나 사회는 낡은 의식을 깨고 무책임함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통로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헬렌켈러가 현재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그렇게 훌륭히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땅을 고르고, 패인 곳은 몇 번이고 채우고 다져서 튼튼히 세워야 한다.

과연 이 사회의 바른 모습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1999년 공감 제 2호에 실린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박순천님의 글입니다.

장애여성공감

1998년 창립된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제도와 기준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장애여성 전문잡지 '공감'을 발간하고 있다. '공감'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E-mail 등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wde.or.kr> E-mail wdc21@hananet.net

기획

어렵고도 즐거웠던
소통의 기억을 되살리며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무척 바빴던 기억 중에 하나로 남는 것은 여성폭력 자치규약 교양 세미나였다. 단과대나 동아리의 세미나 모임, 또는 새터 자리에 가서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치규약의 의미가 풍부하게 알려진 상황이 아닌데다 바쁜 새터와 오티 일정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 겨우 30분 동안 '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폭력의 개념' 만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해 없이 설명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미리 짜놓은 공약을 설명하던 선거 때와는 또 다른 어렵고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습가쁜 오티·새터 기간이 지나고 총여학생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치규약 교양 시간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었다. 우선은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충실한 설명을 하기 어려웠던 기억에 낯이 뜨겁기도 했고, 그 때 받았던 질문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나기도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나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라는 위치와 '내 일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라는 위치가 충돌하지 않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 이후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진행했던 세미나, 행사 후의 토론, 간담회 등 역시 마찬가지로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여성주의 이슈', '여성 문제'라는 몇 글자에서 시작되는 상상은 무척 다양하다. 여성으로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회사나 교실, 어제 저녁에 만났던 애인이나 친구와의 대화, 늦은 시간 갈아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 나의 몸과 마음이 머무는 어떤 곳이든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 총여학생회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의 하루 일과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모두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라는 이름을 붙인 자리와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일상적인 만큼, 총여학생회는 무수한 질문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고, 그 답은 복잡하다. 마치 모든 여성 문제에 대해 척척 답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도 생긴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맞닿아 있는 것이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자극하기도 한다.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 선출된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아무 때나 어떤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학생회가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된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분화 시키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학사행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생활에 부여하는 의미, 삶의 목표 등은 모두 다르며,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누가 누구와 소통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 아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구름 잡는 질문들은 이어진다. 총여학생회가 이야기해온 여성 문제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좀처럼 이슈가 되지 않고, 총여학생회가 성별 간의 대립을 부추긴다고, 여자별이라고 하는 목소리는 늘 질기다. 여성주의 운동이 없다면 성별 간의 대립이 없을까? 단지 드러나지 않는 것뿐 아닌가? 총여학생회가 언제 성별대립을 이야기한 적은 있단가? 오히려 여/남이 공존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얼핏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은 성별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묻혀버린다. 여성주의에서 지적하는 일상의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그런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이 가능한가?

'보편'과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편견은, 총여학생회가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그저 여학생들이 바빠지고, 학내 공동체가 적어지는 것이 이유의 전부 아니다. 그런 현상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학내 여성주의 문화제의 시작은 무수한 토론과 논쟁의 결과를 말이나 글을 넘어서는 언어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다른 방식의 소통을 위한 시도였다. 총여학생회 주최의 문화제가 십여 년 동안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어느새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행사에 치여 그 때 그 때의 발생하는 이슈를 풍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할 때마다, 총여학생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변형되는 여성들의 즐거운 이야기가 어김없이 고개를 든다.

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수적으로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총여학생회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학생들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학내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욕심일까. 나의 즐거웠던 기억이, 총여학생회라는 공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랄 뿐이다.

후기글

코골다가, 울다가, 웃다가,
노래하다가, 춤이라도 춰볼까

3월, 학내에 아카라카 응원곡이 찌렁찌렁 울려 퍼질 즈음, 백양로에 상륙한 플랜카드가 걸렸다. '그만 곤란하길 바래', 그것은 여기 저기서 곤란한 것들에게 곤란한 일들을 겪고 있을, 겪었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여성주의 OT였다.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그래서 아무리 '다 같이 즐겨워보려' 해도 즐겁지 않았던 무수한 OT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더 이상 '내가 없는 나의 시작'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진동하는 응원곡들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과/반 FM 소리에 간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그들이 정해 놓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운 일상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성주의 언어, 여성주의 언어로 관계를 여는 것이 가지는 가능성, 그 큰 힘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정말 그만 곤란하길 바랬다.

이른 아침 누군가는 고무장갑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누군가는 푸른 생에서 의자를 옮기고 있다. 누군가는 김밥을 사러 뛰고, 누군가는 그 와중에 쓰러져 코를 곤다. 심지어 또 그 와중에 그 코고는 이를 향해 사진기를 들어미는 사람도 있다. 모두 다크서클을 애써 감추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박하고도 귀여운 준비들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때로는 넘치고 넘쳐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져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들이 귀찮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밥만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새로운 만남, 또 어떤 새로운 일상의 시작은 지루하기만 하다. 지루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려나. 학내에서 '새내기'들을 대상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경험과 만남들은 심지어 장쾌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편찮아져, 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주의 OT는 그런 지루하고 장쾌같은 시작과 만남을 내뿜게치고, 조금은 다른 시작과 만남을 마련했다. 고주파의 FM 대신 자기가 지은 별명을, 가슴에 달았다. 나는 '몇학년 무슨 과 아무개다'라는 소개 대신, 나는 '이런게 좋더라 저런게 좋더라, 난 이런 정말 아니다 싶더라'라는 소개를 했다. 파란웃에 어깨동무, 역시나 고주파로 일관되는, 누구한테 하는 응원인지도 모르는 응원대신 직접 소품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며 자기 자신을 응원했다. 모두 모여 소주를 틀어 부으며 악을 쓰는 대신 나쵸 하나씩 집어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대단한건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삶에 순간순간에 언제나 직면하게 되는 일이고, 그렇기에 항상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네들의 '의리'도, 저네들의 '돈문제'도 아닌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여성주의 언어로 어울림을 만들어 낸다는 건 정말 짜릿한 일이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롯한 나의 말들로 이루어진 시작과 만남이 짜릿하지 않다면 아마 어떤 마취가 말 풀려서 일게다.

새로운 것에 대한 상상력, 우리의 일상을 뒤엎고 있는 무수한 불들을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 그것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풀려나온 것이 여성주의 OT였다. 자신을 괴롭히던, 말들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려버린 기억들이 누군가의 시작에 힘이 되었다면, 자신을 억누르던 것들을 펼쳐버릴 수 있었다면 누가 뭐래도 이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다.

OT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갇힌 아련함들을 나는 기억한다. 누군가는 일에 지쳐서, 누군가는 실컷 우는 바람에, 누군가는 이 느낌이 뭘지 어리둥절 해서, 누군가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낯선 소통 때문에 모두들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찝찝함들은 새로운 일상을 지지해줄 힘들이다. OT는 끝났지만, 관계와 시작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앞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전히 그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일상에 잔잔한 변화들을 이끌어냈다는 것, 여성주의 OT가 아니어서야.

여성주의 OT는 열려있다. '행사 자체는 끝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작들이 생깁니다. 그 시작들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고민해줄 언어와 사람과 공간이 있다. 그동안의 강요받던 시작과 만남들에 틀을 비집어 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힘이 된다. 나만 그런건 아닐테다. 춤이라도 춰볼까.'

by.. 나누게 =

울러가는 대로 사랑해서 나 여기있고 너 여기있네

장애여성과 검정고시

나는 27세의 장애여성이다.

남들은 이 나이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겠지만, 난 늦은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이다. 언제부터 배움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의식하지 못했었고, 원망도 없이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다.

어릴 적 동갑내기 사촌이 책가방과 학용품을 샀다고 자랑하던 기억... 그리고 너도 다리가 다 나오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 자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느끼는 경험의 차이.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의식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나의 자각심은 자라왔다. 난 그저 안 배워서 똑똑한 아이일 뿐이었다. 어떤 의미의 똑똑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늘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멈추어져 있는 듯한 의식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 인정될 수 없는 무지함, 그것은 내 자아를 키워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였다.

사춘기 때 집 밖으로 나오며 많은 장애여성들을 알게 되었고, 그녀들 또한 비슷한 처지와 입장 속에서 나와 같은 강한 욕구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커 가는 문제의식... 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내 강한 의지로 닫힌 공간을 뚫고 나오려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기억하며, 우리들 앞에 늘 있어 왔던 것처럼 놓여 있는 저 높은 담의 실체를 확인해 가려고 한다. 언젠가 허물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 보았다. 아쉽게도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장애인 아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례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학업을 하고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장애 여성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 유일한 지원자일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만 매달려 보조해 줄 수 없고,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가족의 무관심은 자녀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의 열악한 편의 시설들과 장애인 교육을 비장애인인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현실이 장애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가 중증이나, 경증이나에 따라 장애여성들은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이동성이 없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더 큰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증 장애인은 힘겹게나마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있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 통학을 위한 매일 매일의 이동 자체가 어려운 많은 중증 장애인들은 교육의 바깥에 머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시되고 있다. 장애여성의 교육에서 또 한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처한 어려운 조건들이다. 장애

여성들은 절대 보호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제성이나 전문성도 기대하지 않는다. 어쩌다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특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여성은 교육으로부터 더욱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사회나 국가의 아무런 지원 없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애여성은 한정된 공간에서 성인여성으로서의 성숙됨을 갖지 못하며 소녀로서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장애여성은 집안 살림 내지는 아기 돌보기의 한 몫을 맡게 되고, 그렇게 가정에 얽매어 버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 여성이 읽고 쓰는 법만 익히고 수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 이상의 지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걸려 있는 어떤 욕구를 발견하면서 심적 갈등은 시작되고, 사회에 나오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로 인해 사회성의 미숙함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학벌 위주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제도 속에서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나 직업을 얻을 기회를 배제당한 이유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자립을 위한 경제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벌이 요구되기 때문에 막막한 현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장애여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해 가면서 끝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나 지원자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라는 유일한 통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곳이 장애인 아학이나 검정고시 학원이다.

여기까지가 많은 장애 여성들이 배움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결심을 내린 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검정고시 학원과 장애인 아학은 많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원은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구조로 인해 (1급) 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어려우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장애인 아학은 주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차량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힘겨움이 있다.

아학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지만 전문성의 미숙으로 체계적인 수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교육은 장애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는 개별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아학에서 그것에 맞추어 나아가기란 참으로 힘들다. 우선은 교사가 부족하고 한 학급 안에서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해 나가는 것은 학생과 선생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모든 학습을 단기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엔 부족하고, 수능까지 바라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 정규 과정이라도 마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렇게나마 장애인 아학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혼자서는 할재조차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런 파견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간혹 종교나 개인의 연결망을 통해 개별 교육의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장기간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다 하더라도 대학이란 문은 너무도 높고 그것을 통과하는 길은 험난하다. 많은 경우, 원서 접수에서 멈추고 만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편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이 어렵다. 그런 사람은 통학을 위해 함께 움직여 줄 보조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유일한 지원자인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녀들은 스스로 포기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스스로 교육의 길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지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들을 막고 무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내가 전화상으로 만나 본 현재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장애여성들은 20~30대이며 독립을 원하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의 절실함을 알게 되었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때늦은 공부라 나이로 인한 학습 부진, 생활을 위해 작업과 병행하며 공부해야 하는 버거움, 장시간 학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렇게 장애여성들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와 끝없는 싸움을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는 장애여성들이 많고, 특히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이루면서 어쩔 수 없는 여성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멀어져 간다. 미련을 간직할 채,

사실, 검정고시를 무사히 마친다 하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출세나 성공이 아닌 내 자아를 위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며 그 기회 또한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왜 장애여성들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권리를 당연히 요구할 곳이 없을까?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을 가정이나 부모에게만 온전히 돌려서는 안 된다.

국가나 사회는 낡은 의식을 깨고 무책임함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통로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헬렌켈러가 현재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그렇게 훌륭히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땅을 고르고, 패인 곳은 몇 번이고 채우고 다져서 튼튼히 세워야 한다.

과연 이 사회의 바른 모습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1999년 공감 제 2호에 실린

장애여성공간 활동가 박순천님의 글입니다.

장애여성공간

1998년 창립된 장애여성공간은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제도와 기준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장애여성 전문잡지 '공감'을 발간하고 있다. '공감'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E-mail 등으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wde.or.kr> E-mail wde21@hananet.net

뜨거운 개떡, 총여 폐지론을 해부한다

"대학 내 여성 운동 이대로 좋은 것인가?", "총여학생회 폐지 논란 일어" 등의 뉴스가 신문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100분 토론에서 총여와 총학을 부를만도 한데, 시선 집중 인터뷰에만 그치다니, 그것이 더 이상할 정도다.

어쨌든 총여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개떡인 것만은 사실이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3월 15일 학운위 휴회 시간에 갑작스레 사학자본과의 상설 협력기구 설립(비상위원회)과 외부단체 가입 제한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총학생회칙 개정안 총투표를 발의하였다. 이는 학생들과 사전 논의가 전혀없는 급작스러운 발표로, 현 회칙의 허점을 악용한 독단적 발의였고 학생 대표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총회장은 3월 19일 연세 총추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극단적 페미니즘, 비민주적 조직 운영, 여학생과의 괴리를 근거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주장하면서 총여학생회 선출 조항 삭제 및 총학 산하 성평등 위원회 설치 등 회칙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선언. 총여 폐지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학생 대표자들은 총투표를 규탄하는 학운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고 총여를 비롯한 많은 운동 단위가 총여 폐지론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총학은 이를 "운동권의 뒀 공작"으로 매도하고 총투표 조직을 강행하고 있다.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존폐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월 서정범 교수 성폭력 가해 혐의에 대해 사건을 접수받은 경희대 총여는 정액 채취,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아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고, 학교 당국은 미처거림 끝에 서교수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고 여성의 증거 조작 판결을 내리고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했다.* 학내 반동 세력뿐만 아니라 조중동,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의 부르주아 언론들은 일제히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 권력을 남용하여 노교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경거망동한 극단적 페미니즘의 실수" 이라고 너도나도 명비난을 퍼부었다. 경희대 총여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최종 결론에서 총여학생회의 오판이 기정사실화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폭력 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단(!) 반동*적 총학은 검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여학생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62.5%가 총여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경희대 총여는 재선임 투표를 제안했고 결국 60.72%의 신임으로 사퇴는 막았으나, 총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동주의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세대처럼" 총여 폐지회칙 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금관대 총여학생회는 3월 재선거가 무산되었고 활동가 부족으로 비대위 구성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총여학생회 폐지 논란에 오르내리고 있다.

총여 폐지론자들의 본심은 여성 운동 자체의 쇠퇴나 자신들의 정치로의 복속이다. 총학생회장은 총여가 "세터에서 성폭력 문제 견제, 교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여학생 대변"과 같은 순기능을 담당해 온 반면, "극단적 페미니즘"과 "조직의 비민주성"을 통해 "여학생과의 괴리" 등의 역기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명정대하고 상식적이신 우리의 총회장님은 다른 건 몰라도 반성폭력 운동은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총회장은 극단적 페미니즘이란 남성을 잠정적 성폭력 가해자로 취급하는 반성폭력 운동이라고 선언함

그들의 눈에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는 적대적 조직일 수밖에 없다.

교수 성폭력 근절 운동을 통해 사학 자본에 맞서고, 월경 공결제·여학생 휴게실 확충을 통해 "역차별"을 조장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연대하는 총여학생회의 파격적인 당파성은 학생회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마초적 남성들을 억압하는 상당히 불편한 정치였던 것이다.

으로서, 여성 운동의 순기능은 곧 역기능이라는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다. 왜, 총여는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 여학생들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지키면 총여는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단대별로 여성 주체가 등장하면 총학은 총여를 '민주적' 조직으로 인정할까? 도대체 여성 운동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이유는 뭘까?

왜 그들은 총여학생회 폐지를 운운하는가?

현재 총여학생회 폐지 "운동"은 총학생회 및 그들의 지지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물론 총학생회의 회칙 개정안은 총여 폐지를 부각함으로써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던 총학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고자, 자신들을 지지한 반동주의자들에게 확실히 어필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인기 물이의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도사리고 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 학사 행정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자치 기구이자 노동자 계급 및 근로대중의 운동에 동참, 지지, 지원하기 위한 학생회의 성격을 완전히 부정했다. 반동적 총학생회는 학생회를 정치적 중립, 복지 센터, 학교 발전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사학자본과의 협력 기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는 적대적 조직일 수밖에 없다.* 교수 성폭력 근절 운동을 통해 사학 자본에 맞서고, 월경 공결제·여학생 휴게실 확충을 통해 "역차별"을 조장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연대하는 총여학생회의 파격적인 당파성은 학생회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마초적 남성들을 억압하는 상당히 불편한 정치였던 것이다. 월경 공결제 운동을 주도한 경희대와 시범 운영에 성공한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폐지 논란의 정점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2003년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비롯하여, 2003년부터 교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활발히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 대표자들은 비타협적인 교육 투쟁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난한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고자, 매년 형식적인 교육 투쟁에 맞서 학생들을 우롱하는 협상에 반대해왔다. 게다가 2007년 19대 총여학생회의 경우, 총여학생회 역사상 최초로 레즈비언 운동

을 핵심 공약으로 당선되어 반동들을 소스라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운동과는 무관한' 2006년 12월 장 애 아동 특수학교인 연세 재할 학교 신축 및 학칙 개정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급진성을 보였기 때문에, 반동주의자들은 더 이상 총여를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그들은 여성 운동의 쇠퇴를 갈망하는가?

반성폭력에 대한 반동세력의 극렬한 반대는 남성을 잠정적 성폭력범으로 보는 불쾌감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이해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학 내 반동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를 자신의 사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극단적 독재를 염원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의 초과 이윤 착취를 위해 여성 억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당연히 학생 반동주의자들과 공유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력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을 상당히 증시한다. 응당, 자본가 계급은 사회적 생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수혜자이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식주, 교육, 의료, 문화 등등)은 자본가 계급이 부담해야 하는데, 가족제도는 그 모든 것들을 개별 가정의 책임과 역할로 돌려버린다. 여성의 희생이 전제되는 한, 가족제도는 자본가 계급에게 비용 절감의 효과를 준다. 여성은 출산·육아를 포함한 온갖 가사 노동을 무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여성은 싼값에 언제든지 쓰다 버릴 수 있는 임시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같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불평등은 "세계적 상식"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온전히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 및 그들의 정치에 동의하는 반동주의자들은 여성 억압을 원하고 가부장제를 고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성폭력*은 여성 억압의 현상 형태 일뿐만 아니라 여성 억압을 존속시키는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반동주의자들은 결코 성폭력에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없다.(물론, 휴머니즘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강간"은 나쁘다고 이야기 할 것이며, 좀 정당한 경우라면 여성 비하적 언어도 분명 삼갈 것이다). 성매매 역시 가난한 여성



조계, 호랑이, 그리고 불교/불교

을 사회 저변의 부도덕한 존재로 방치·양산함으로써 여성 억압을 표현하고 여성 억압을 강화하므로, 궁극적으로 반동주의자의 이해와 배치되지 않는다. (이 역시 교양 있는 경우, 성매매 여성을 시혜적으로 동정하고 자신의 애인과 부인에게 충실한 남성이 되고자 성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자본가계급에 의한 여성 노동자 착취의 근절을 주장하는 여성운동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내 여성 운동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연세대 총여학생회 폐지 "운동"이 강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운동은 계속된다

모든 女子는 자신을 정치적 악자로서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기도 한다. 본인이 여성임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은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도 많다. 총여를 지지하지만 총여의 공약 전부를 이견 없이 모조리 찬성하는 여학생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여성은 총여가 보다 여성 리더십 향상에 주력했으면 하고 바라

고 어떤 여성은 여대생 취업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어떤 여성은 호모포비아를 근절하는데 가장 힘써주었으면 하고 바라며, 여성 노동자와 연대 투쟁에 앞장서길 바라는 여성도 있다. 어떤 여성은 총여가 멀다고도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여학생회가 세워지고,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는 것은 가부장제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독자적 조직으로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총여는 모든 정치적 악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 운동의 방향은 다양하다. 여성 해방에 대해 동의하지만 19대 총여와 다른 방식의 운동을 고민하는 여학우들이 계신다면, 총여 활동가들은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반동주의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총여 폐지론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총여폐지, 여성운동 축소에 상당히 맞서며, 나는 여학생 여러분과 여성주의자의 자신감, 정당성, 발전적 미래를 공유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by_ 투쟁하는 장대 초생
17대 총여학생회 집행부

1 검찰 스스로도 증거 조작을 발표할 때, 녹취 편집이 너무나 완벽해서 조작임을 알아 처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만약 신고 여성의 위증에 밝혀진다 할지라도, 총여학생회가 "수사기관"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말이 무조건 옳다' 라고 우기는 피해자 임의주의가 아니다. 가부장제를 살아가는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해당 여성이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2 반동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다. 좀 촌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은 정치적 악자의 해방에 극렬히 반대하는 그들의 정치를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이므로, 적극 보급해볼까 한다.

3 총여학생회에 대한 정당성 공격은 이미 2005년부터 제기되었다. 2005년 탈정치 작은 총학 및 그들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 - 남학생의 학생회비 500원이 총여학생회로 유입되는 것이 불만이아 남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500원을 돌려내라-을 근거로 한 총여 존폐기에 주력하였다. 당시 총학생회 대표자들은 '총여를 없애겠다', '총남학생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다니면서 2007년의 사태를 전질히 예고했다. 2007년 44대 총학생회와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동일하다.

4 2006년 18대 총여학생회는 성평등 자치 규약(기존 반성폭력 센터 내규) 개정의 일환으로 여성에 중심주의 근절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에 신과대 학생회는 예수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하였고, 신과대는 '문제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신과대 학생회장 최준우는 현재 44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5 뉴니피즘의 선로를 밟고 있는 뉴라이프는 2006 몇몇 캠퍼스의 학생회 선거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학교를 통해 학생 반동주의자들에게 "한총련 탈퇴, 강성 노조 비난, 기어 입학제 도입, 비정규직 확산!!" 등을 강연하고 공약 입안을 독려한 바 있다.

6 동성애 혐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7 이때의 성폭력은 성별 권력 관계에 기반하여 성(sexual,gender)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여성 억압을 의미한다.

Inside OUT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19대 총여학생회는 현재 싸이월드 클럽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여성주의로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써 총여학생회 소개 및 다양한 행사 안내, 자유게시판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통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총여학생회가 언제나 열려 있듯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또한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http://club.cyworld.com/insideout2007> 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

강의실 내 호모포비아 발언, 신고하세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간주되어 왔기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성애중심주의적인 생각들은 호모포비아적인 일상을 아우른 문제가 없다는 듯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성이 아닌 모든 정체성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폭력과 배제를 바로 바라보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개개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일상다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강의실 내 호모포비아 발언을 신고 받습니다. 발언 내용과, 강의명, 교수님 성함을 적어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의 '호모포비아 발언 신고'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antiphobia@yonsei.ac.kr 메일로 보내주세요!

생리결석제가 시범운영 됩니다!

총여학생회가 추진해 온 생리결석제가 2007년 1학기부터 학사 포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리결석제는 한 학기 동안의 시범운영 후,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식 제도화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학생 교육권인 생리 결석제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학사 포털 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에 로그인 → 학사포털/교과 수강 톨더 → 생리결석제를 클릭

• 생리결석제 신청 시 참고사항

1. 결석제 인정여부는 담당 교, 강사의 재량으로 실시
2. 한학기내 최대 5일, 1회 2일까지 사용, 다음 사용은 3주(21일) 후부터
3. 결석제 제출은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
4. 채플, 시험 및 각종 평가시 결석은 불인정

총/여 학생회 이야기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발간 자료집 및 책자

학생회는 왜 존재할까?

우리는 몇 백 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에 들어온다. 대학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8.7%나 인상된 등록금이 용도를 알 수 없는 5-5-10 프로젝트 등에 들어갈 뿐, 당장 자신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감할 것이다. 안상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험 실습비, 입학금의 용도에 대한 공개 요구조차 학교 당국은 이유없이 묵살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해, 대외기구인 학생회를 구성한다.

당신에게 있어 "교육권"은 무엇입니까?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권이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 동아리 홍보가 가능한 다양한 게시판 등일 것이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구성하는 정체성, 성별, 몸의 외적 구성 등이 어떠한 차별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교육권"이다. "앞으로 정치할 사람은 마누라 간수 잘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 특정 성을 관리의 대상으로서 칭하는 것에 불쾌해진 학생들에게 "교육권"이란 그 교수에게 행해지는 반성폭력 의무 교양 혹은 처벌이며, 자신의 문제제기를 '민감함'으로 치부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학생회의 존재 이유다. 학교 당국은 5개의 학과가 10년 안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만 열안에 되어 있을 뿐,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내의 자치 공간 부족, 남성중심적

관계 속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대학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권"이 학교 당국의 발전 논리 보다 우선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 학생회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는?

하지만 단 하나의 학생회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어떤 교육권은 단대 학생회 속에서, 자신이 속한 동아리 속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으로 규정지어진 성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장애 유무 속에서 이야기되기도 한다. 총여학생회도 이런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다양한 학생회 중 하나다.

총여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내 여성들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단 하나의 예로, 생리통이 심해져도 검은 봉지 속 담겨 있는 생리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해,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자체적인 생리 결석계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당국의 생리 결석계 시범 운영 시행과 생리를 금기시하는 학내 분위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것이 "모든 학내 여성"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른다. 누군가는 생리 결석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결석 사유에 생리통이라고 적혀서 제출했는지 모른다. 누군가 생리통이 없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도, 자신이 생리통 때문에 결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 여기에서 그 '누군가' 중 어느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교육권"에 있어서 다수의 논리가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호모토피아로 인해 레즈비언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

의 여학생과의 '괴리'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장애 학생의 수가 '적다'라는 논리로, 장애 학생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바꾸는 것이 '예산 낭비'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전체 학생'들의 단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이것이 총여학생회 존재 이유입니다.

총여학생회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몰래 카메라를 조심해야 하고, 치마를 입었을 때 '단정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억압에서 벗어난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공간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억압을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 사회에서 왜 '장애'라는 타이틀 속에서만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단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의한다. '새내기 레즈비언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플랑 하나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학내 상황에서 레즈비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총여학생회가 즐겨 이야기하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학생들과의 괴리'도 아니다.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목소리들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나 억압으로 다가와 "교육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유고, 총여학생회가 19년 동안 활동해온 이유인 것이다.

by_ 샐리

총여학생회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학내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내사회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성은 학교 밖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세인의 이름을 붙이지만 여학생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행사를 하고, 나이주의와 학년주의를 기반한,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며 성찰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입니다. 시설 관리 노동자의 직제를 성별 구분적으로 나누어 놓고, 여성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과, 더 강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작은 지식인, 대학생, 연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안에도 가부장적 폭력성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사회는 여성을 위한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두 학생회비로 운영된다고 해도 총장배 구기대회를 여는 것은 이상일 뿐이지만, 여학생 수업을 만드는 것에는 결코려움을 느낍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기에도 익숙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험을 인정하기 위한 '성폭력'의 규정을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몰아붙입니다. 여성의 노동이 그녀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도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기에, 여성의 노동을 '집에서도 하는 일',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평가절하하고, 최저임금이 간신히 넘는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성애자-비정애자-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을 규정하는 이 사회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비정상에 대한 혐오를 발생시키고, 열등하다는 편견을 더합니다. 웃고 넘어가기 힘

든 여성 비하 발언이 강의실에서 흘러나오는 것, 의대 강의실에는 장애인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 성소수자 모임에서 내걸은 현수막을 태우려 했다는 단과대 익명 게시판의 발언과 같은 일상의 단편들은 이러한 회일화된 정상성의 규정이 학내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통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행위들은, 합리적으로 따져볼 겨를도 없이 이미 우리에게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유물과도 같은 차별과 배제의 행동양식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작업을 수반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구조를 그냥 간과하며, 제도상의 평등과 현실적인 교묘한 불평등을 조율하는, 시민사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용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주의에서 주목하는, 성별 이분법에 따른 차별을 종식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남성주의를 우리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하고, 그것에 걸맞은 역할과 행동과 양태를 요구하는 이 성별화된 사회가 개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성에 주목합니다. 결국 이러한 가부장제의 피해자는 모든 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상인'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쉽게 경제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며, 사회 진출이 차단당하는, 사회적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많은 그녀들이 더욱 심화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분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며 저항을 다짐합니다.

학내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몸의 부담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생리결석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풍토를 비판하고, 그 모순된 잣대를 바로잡고자 성평등 자치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에게 쏟아지는 대상화하는 시선과 끊임없는 평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억압받는 성소수자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어 알리고자 문화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기시되어 왔던 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햇빛아래 풀어헤치기 위해 매년 여성제를 해 왔습니다. 억압받는 누구에게나 해방의 경험은 필요하기에, 여성주의 언어를 나누려 노력해왔습니다.

여성주의의 섬세한 언어와 어떤 영역에도 깨어있는 감수성은 모든 부당한 권력과, 그 권력이 가하는 총합한 억압을 감지하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학내에서도 예외없이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개개인을 읽매고 있는 가부장제의 사슬을 조금씩 풀거나, 녹이거나, 끊어내고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by_ 자몽

여성주의자로 살아가기란 이렇게나 행복해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들은 여성주의를 모른다. 여성주의자를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여성주의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여성주의이다. 근거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끝나는 것들.

물론 성차별에 관해 이야기하면 누구나 그 순간만큼은 열성적인 여성주의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성차별적 모습들은 보지 못한다.

나 역시 성차별에 반대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에 그칠 뿐 남들과 다를 것은 없었다. 왜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해방인지 의문했고 여성주의자이기 보다는 여성 우월주의자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비판이나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보자기'이다. 보자기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학회의 이름으로 여성의 성기의 첫 글자, 남성의 성기의 첫 글자 그리고 한자 그 기(其)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글자의 의미와 보자기가 물건들을 싸서 하나로 묶어 준다는 것을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 역시 여성주의학회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내게 절실한 문제는 아니었다. 또 평소 여성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감이 나를 가로막았다. 너무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에.

익숙한 것은 편하다. 사실 편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 익숙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니까.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되는 당연하지 않은 그곳에 문제가 있다.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익숙한 것의 예로 대학에 처음 들어올 땐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는 술자리들 수 있다.

사실 선택하는 것은 언니, 형과는 좀 다르다. 선택해 주는 술잔을 거절하기란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다. 또 소란스런 게임 속에서 갖게 되는 술자리는 몇 번을 갖더라도 몇 마디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는 열시 즈음이 되면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자들이 우르르 일어나 집에 가는 모습이다. 좀 더 있으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통급시간이다. 밤길이 무서워 그러는 것이라면 어디 여자만 위험하겠는가. 칼 들고 덤비는 강도를 남자라고 버텨낼까. 하지만 남자역시 이런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시에 일어나면 무슨 죄라도 짓는 기본이다.

이것들은 익숙하지만 참 불편하다. 불편한 것이 익숙한 현실이 당연한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정말로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술을 마시면 되고 이야기 할 사람은 이야기 하면 된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혐악해 밤길이 위험하다면 다함께 일찍 자리를 마치면 되는 거다. 정말 당연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익숙한 것과 당연한 것이 불일치하는 자리에 우리의 학회 '보자기'가 위치한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진리를 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익숙한 것이길 바랄 뿐이다.

반에서 그 불일치를 논하는 것이 학회 '보자기'의 몫이라면 학교에서는 총여학생회가 그 역할을 해왔다. 지금 그 총여학생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총여학생회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지향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 폐지를 발의한 총학생회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총여학생회를 이기적이다, 극단적이다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총여학생회 폐지를 발의한 총학생회조차 스스로가 말한 극단적 페미니즘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연세춘추 3월 26일자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총여학생회는 그들로써만 존재할 수는 없다. 총여학생회의 뒤에는 지난 학기 선거를 통해 그들을 선출한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볼까. 이유조차 푼 바로 말하지 못하는 폐지논의와 수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통한 총여학생회의 존재, 이중 무엇이 당연한 것일까.

지금 난 당연한 것과 익숙한 것을 말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실이라면 익숙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움은 진실과 현실의 불일치에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익숙할지는 자신이 없다. 지금 나의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은 당신이라면 우리 함께 생각해볼까. 당연한 것에 관하여. 당연한 것과 익숙한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향한 승리인지는 차차 알아갈 테니까.

by_ 김주수

문과대학 철학 8반 여성주의 소모임 '보자기'

참을 수 없는 호모포비아의 가벼움

수업을 듣다 보면, 특히 춘곤증에 눈꺼풀이 납덩어처럼 무거워져 꾸벅꾸벅 졸리기 시작하면 교수 혹은 학생이 분위기를 살리고자 농담을 하곤 한다. 눈꺼풀을 눈꺼풀답게 가볍게 만들기 위해 던지는 이 한마디 농담의 가벼움이 가끔은 어떤 이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곤 한다. 이 '참을 수 없는 농담의 가벼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강의실 내에서의 성차별적 발언과 행위에 대해선 오랜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적체성에 관련한 혐오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주의도 경각심도 강의실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차별적 농담에 대해서는 그 참을 수 없는 천박함을 조금이나마 '때때로' 인식하곤 하지만 성적체성 차별적 발언과 호모포비아적 농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천박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호모포비아에 대해선 천박한가에 대해서 구절구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에 하지 않겠다. 그보다는 강의실 내에서 호모포비아적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호모포비아를 그 행태에 따라 간단하게 분류하면 천박한 호모포비아와 우아한 호모포비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호모포비아적 발언 및 행위를 하며 후자는 간접적으로 이를 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자신의 호모포비아적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천박한 호모포비아인 교수 혹은 학생은 역설적이게도 천박한 호모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은 그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 천박함 또한 강해지기에 천박한 호모포비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천박함을 감지하고 비난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행태로서의 매우 불편할하며 또한 비경한 호모포비아의 수단은 아는 척과 아예 수반되는 타자화이다. 우아한 호모포비아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성적소수자를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과 행동이 왜 호모포비아적인지는 성적소수자,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 뇌는 생각한다. 안다고 하는 자들, 분명 반갑다. 이해한다고 하는 자들, 분명 매우 감사하다. 그런데 왜 내 심장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을까? 성적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소수자들이 싸우는 궁극적인 것은 소외와 배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는 척하지만 자신들의 세계에는 성적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이런 믿음에 근거해 바로 옆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적소수자를 저 멀리 내쫓아 타자화시킨다. 그렇기에 그들이 호모포비아인 것이다. 자신의 옆집에, 지금 이 강의실에 성적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한, 성적소수자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한, 그들은 호모포비아이다.

호모포비아에 (심지어 자신이 호모포비아인지도 모른 채) 강의실 내에서 기세등등하게 이야기를 할 때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발언에 대해 항의할 때가 있다. 이에 대한 호모포비아의 반응은 그들이 어떻게 혐오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천박한 호모포비아들의 반응은 대체로 명목적 배제이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리고 고맙게도 명칭한다. 그들은 항의자를 향해 동성애 혐오 표현에 대해 항의를 하니 항의자는 성적소수자라는 식의 무식한 발언을 아무런 망

설임도 없이 날림으로서 그들의 천박함을 스스로 드러내 준다. 이 얼마나 고마운가.

우아한 호모포비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아는 척하면서 항의자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인 것이며 자신이기에 이 정도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박한 호모포비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낫다고도 볼 수도 있기에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의 너무나도 눈물겨운 이해와 관용은 자신들이 사회화,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두고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간접적 혐오 표현도 엄연히 호모포비아적 행위이며 성적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호모포비아는 가끔 기사에 실리는 성적소수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며 살해하는 파렴치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호모포비아의 극단적 일부이다. 호모포비아는 이성애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내에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란 호모포비아적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강의실은 세상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 아무리 호모포비아적 사회라지만 이 장소에서마저 호모포비아에 출몰해 이성애중심주의와 이와 동급인 호모포비아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만약 일상 속에서 참을 수 없는 호모포비아의 가벼움이 출몰한다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라!

by_ 연세대학교 성적소수자 공동체, 김두게이 회원 1인
그 밖의 모든 차별과 소외가 사라지는
꿈만 꾸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상’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녀들이 말한다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네이버에서 장애인의 날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그레,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존하고 있고,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공존을 위한 이해와 장애인의 날에 대한 설명에서의 ‘이해’는 화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장애인을 ‘재활’ 되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이해’를 이야기할 때, 이미 장애인의 존재는 재단된다. 장애라는 것을 ‘재활’ 되어야 할 것으로, 장애인을 가장 애인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다. 정상/비정상, 비장애인/장애인의 권력 구도는 장애인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교육권, 노동권을 비가시화한다. 네이버의 정의에 맞추어 진행되어온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재활’ 하지 못한 장애인의 차별을 짊어지듯 돕기 정도로 해결하는 척 하려했을 뿐이다. 이 속에서 ‘장애인의 날’은 오히려 장애인의 억압적 현실을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주체적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뿐이었다. ‘재활’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장애인은 추구해야 할 목표, ‘정상인’에서 벗어나있는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4월 20일부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장애인 운동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보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말이 늦는 것, 속도가 느린 것, 어떤 보조적 기구가 필요한 것은 ‘불편’이라는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동시에 장애라는 문제는 개인이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 혹은 배제와 관계없이 “강인한 정신력”과 “굳은 심지”만 있다면, ‘비장애인 못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매스 미디어든 출판사든 사람들이든 떠들어대는 것이다.

장애는 그 사람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은 몸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몸에 덧씌워진 사회적 시선과 배제에 대한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이 ‘불편’한 것은 그 사람이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휠체어가 다닐 수 없도록 온갖 턱들을 거리 곳곳에 배치해놓았기 때문이다.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되는 장애는 사회적 억압의 산물이다.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유되는 전제, 19대 총여학생회에서 추구하는 것, 장애 여성 운동에서 기본 원칙은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존중이다. 이 존중은 지금 이 사회가 규정해놓은 ‘정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는, ‘재활’이라는 명명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조금 더 ‘정상’으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애 여성의 날, 탄생하다

장애는 사회구조적으로 탄생한 불편함이다, 라는 전제 아래서 2003년 4월 16일 장애 여성의 날이 탄생했다. 이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가부장제는 장애 운동 지형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는 통칭이 실상 ‘남성’ 장애인의 경험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은 스스로의 경험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드러나지 못한 경험은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을 ‘정상’으로 바라보려는 사회 속에서 왜곡되고 억압받아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장애 여성’이라는 범주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척추 마비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등 그 여성들의 다양한 몸에서부터, 학력, 재산, 성적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모습까지 ‘장애 여성’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 녹아 있는 억압은 서로 다른 역사와 맥락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애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개인의 억압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억압은 언제나 정교하고, 교묘하다. 그리고 개인의 위치에 따라 다른 맥락으로 설명된다. 지금 사회에서 많은 비장애 여성에게 결혼은 억압이자 강요다. “결혼 안 하니?”라는 질문은 일상이며, ‘독신’은 트렌드처럼 이야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아니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며 결혼이라는 상품을 팔고자 하는 회사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억압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가? 많은 경우 결혼은 비장애인 이성애자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비장애인 이성애자 전업주부인 여성의 제도적 계약을 뜻할 뿐이다. 장애 여성은 결혼의 필수 조건인 가사 노동이 어렵고, 재생산의 영역까지 포함한 ‘성’의 문제에서 무성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결혼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박탈당한다. 장애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시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속에서 장애 여성의 억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애 여성은 결혼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혼하지 않을 것을 강요당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동일하지 않다. 영화 속에서, 책 속에서, 많은 매체 속에서, 연세 대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다른 위치로 살아가는 장애 여성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재활’ ‘장애인’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현실과 연관되는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일상의 억압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촘촘한 억압을 풀어내고,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2

- 11 [특집] 우리의 거울을 연세재활학교의 봄을 위한 시간이었다
- 10 [영화평] 조제와 쿠미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시선들
- 8-9 [인터뷰] ‘대학공간에서 장애여성들이 당당해 질 수 있도록’
현 장애학생지원 네트워크 활동가 김형수
- [광고] 2007 레즈비언 문화제,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 [광고] 내 관심대로 고르는 재미가 있다!
여성주의 운동팀에서 만나요!
- [서평] 장애여성, 책으로 말한다